

2003학년도
석사학위(M.Div.)논문

예배사를 통해 본 개혁 교회 예배의
고찰과 갱신
-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전공

탁 병 호

예배사를 통해 본 개혁 교회 예배의
고찰과 갱신

-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송용조

이 논문을 석사학위(M.Div.)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일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실천신학전공

탁 병 호

탁병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계 약 신 학 대 학 원 대 학 교

2003년 12월 일

탁병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심사위원 _____

계 약 신 학 대 학 원 대 학 교

2003년 12월 일

목 차

| | |
|----------------------------|----|
| I. 서론 | 1 |
| A. 연구목적 | 1 |
| B. 연구방법 | 2 |
| II. 예배의 정의 | 3 |
| A. 예배의 신학적 | 3 |
| B. 어원적 고찰 | 4 |
| 1.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 4 |
| 2.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 6 |
| 3. 영어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 7 |
| III. 예배의 역사적 변천 | 8 |
| A. 구약의 예배 | 8 |
| 1. 족장시대의 예배와 제사 | 8 |
| 2. 모세시대의 예배와 제사 | 9 |
| 3. 성전예배 | 11 |
| 4. 회당예배 | 12 |
| 5. 절기들 | 14 |
| B. 신약의 예배 | 16 |
| 1. 예수님 시대의 예배 | 16 |

| | |
|------------------------|----|
| 2. 사도시대 예배 | 18 |
| C. 속사도 시대의 예배 | 20 |
| D. 중세교회의 예배 | 21 |
| 1. 동방교회의 예배 | 21 |
| 2. 서방교회의 예배 | 23 |
| 3.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 24 |
| 4. 수도원 운동 | 27 |
| | |
| IV.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 30 |
| A. 루터의 예배 | 30 |
| B. 쾰빙글리의 예배 | 34 |
| C. 칼빈의 예배 | 36 |
| D. 부처의 예배 | 40 |
| E. 존 낙스의 예배 | 42 |
| | |
| V.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 45 |
| A. 반예배적 경향 | 45 |
| 1. 청교도들의 예배 | 45 |
| 2.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 | 47 |
| B. 이해를 강조하는 경향 | 48 |
| 1. 회중 교회의 예배 | 48 |
| 2. 장로 교회의 예배 | 49 |
| C.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 | 50 |

| | |
|--------------------------|----|
| 1. 경건주의 예배 | 50 |
| 2. 모라비안주의의 예배 | 51 |
| 3. 부흥 운동 | 51 |
| 4. 현대의 은사 운동 | 52 |
| | |
| VI. 현대 예배의 문제점과 제언 | 53 |
| A. 현대 예배의 문제점 | 53 |
| 1. 공연적 요소 | 53 |
| 2. 수단적 요소 | 55 |
| 3. 신비적 요소 | 56 |
| B. 제언 | 57 |
| | |
| VII. 결론 | 61 |
| | |
| 참고문헌 | 63 |

I. 서론

A. 연구 목적

오늘날 한국 개혁신교회는 일주일에 적어도 10회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예배를 비롯해 새벽예배까지 한국교회는 많은 모임과 예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틀을 깨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각 시대의 토착화라는 명분하에 예배를 인간 중심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하였고, 현대문화를 접목시킴으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모습을 바꾸는 경향이 많이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 개혁신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

현대인들은 전통예배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10대와 20대에는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열린 예배를 비롯한 많은 문화를 이용한 예배에 대해서 오히려 열려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날 장로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파의 예배의 모습들이 문화와 함께 ‘보여주는 예배’의 형태로서 많은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

1980년 초부터 들어온 ‘경배와 찬양’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부정적인 면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예배에서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태도, 하나님께 나아감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 부흥의 운동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예배안에 음악적 요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의 영적 치유와 성도의 교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오

늘날 ‘열린 예배’라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예배에서 치유와 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치우치는 관계로 교회와 예배의 거룩함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며, 올바른 말씀 선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균형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교파가 여러 가지 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와 본질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로 내려온 전통과 신학의 바탕 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장로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예배의 목표와 형태를 바로 제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의 회복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B. 연구방법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장로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예전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예배의 정의를 가지고 예배를 개혁하며, 무엇에 중심을 두고 예배를 진행하며 각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근본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예배를 개혁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봄으로, 개혁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한 예배에 대한 교훈과 정의, 본질, 그리고 그 당시 어떠한 예배의 정신과 모습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성경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의 예배의 정의와 역사를 고찰해보고, 오늘날 유행한 다양한 예배를 평가하고, 성경적이며 개혁주의적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예배의 정의

A. 예배의 신학적 정의

예배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예배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내놓았다.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이해를 갖게 해 준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는 예배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라고 정의하였다.¹⁾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보는 것이다. 존 헉스터블(John Huxtable)은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간의 대화(communication)라고 정의하였고, 피터 브루너(Peter Bruner)는 봉사로서의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지글러(Franklin Segler)는 예배는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²⁾ 이렇게 여러 예배신학자들의 정의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한 조영엽 박사는 “예배는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고백, 헌신, 감사의 예물 등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³⁾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은 마음을 다하

1)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역, 『예배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8.

2) 이명희 외 9명,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출판사, 2001), 19-26.

3)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43.

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예배에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많은 고백서들과 신조들이 예배에 대하여 정의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을 오해한 많은 현대 예배인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해석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예배가 관행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이다. 그런 의미에서 랄프(Ralph Martin)가 말한 예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이다.”⁵⁾

B. 어원적 고찰

1. 구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a. 사하

사하(סָחָה)라는 단어는 겸손의 상징으로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⁶⁾ 이 단어는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엎드리

4) G. I. Williamso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for Study Classes*, 나용화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260.

5) Martin Ralph,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초대교회예배』 (서울: 은성출판사, 1989), 21.

다,’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라는 뜻을 갖는다. 위대한 왕이시며 절대적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인들의 자세를 뜻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겸손함과 깊은 존경심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⁷⁾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곁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을 때(창 18:2), 욥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을 때(욥 1:20),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시 99:5)등의 말씀들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다.⁸⁾

b. 아바드

아바드(אָבָד)라는 단어는 ‘봉사’(service)의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는 ‘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숭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온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한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자신들을 스스로 종이라고 불렀다(시 89:3,20; 105:42; 116:16). 고대 히브리인의 예배 개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예배라고 생각했다.¹⁰⁾

c. 세가드

세가드(שָׂגַד)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

6) 조영엽, 『교회론』, 144.

7) Martin Ralph, *Worship in the Early Church*, 23.

8) 광노광, 『예배학 개론』 (서울: 성지원, 1994), 34-35.

9) 조영엽, 『교회론』, 144-45.

10) 광노광, 『예배학 개론』, 35.

으로 사용이 되었다.¹¹⁾

2.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a. 세보마이

세보마이(σέβομαι)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으로 숭배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¹²⁾

b.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προσκυνέω)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머리를 숙이다,’ ‘입맞추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사하(שָׁחָ)라는 단어의 헬라어 번역이다.¹³⁾ 신약에서 약 60번 정도 사용된 단어로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4:24),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려고 올라갔다고 했을 때(행 24:11)와 고린도 서신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리라고 하였을 때(고전 14:23-25) 모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¹⁴⁾

c. 라트류오

라트류오(λατρεύω)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אָבַד)의 헬라어 번역으로서 그 뜻은 ‘백성의 일’ 또는 ‘사역,’ ‘경배,’ ‘섬김’이다. 이 말은 ‘백성’의 의미를 지닌 레오스(lews)와 ‘일’의 뜻을 지닌 에르곤(ergwn)의 합성어로,

11) 조영업, 『교회론』, 145.

12) 위의 책.

13) 위의 책.

14) 곽노광, 『예배학 개론』, 36.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사가랴의 제사장 직무를 가르킬 때(눅 1:23),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헌신과 봉사를 말할 때(빌 2:17),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말할 때(히 3:6) 사용되었다.¹⁵⁾

3. 영어에서 사용된 예배의 용어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는 썬슨 고대어 명사인 ‘weorhscipe’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말이 워스십(worthship)으로 변천되었는데, 이 말은 ‘가치’를 의미하는 워스(worth)와 ‘신분’을 의미하는 접미어 십(ship)으로 이루어진 복합명사이다. 이 말의 뜻이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말이 워십(worship)이 되었고, 뜻은 ‘가치를 돌린다’는 것이다. 이 단어는 원래 지체놓은 사람을 존경의 의미로 부를 때 사용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용될 때에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겠다.¹⁶⁾

15) 이명희 외 9명, 『복음주의 예배학』, 16.

16)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서울: 예수전도단, 1993), 52.

Ⅲ. 예배의 역사적 변천

A. 구약의 예배

기독교의 예배는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창조부터 시작하는 구약은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섬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예배는 신약의 기독교 예배에 하나의 역사적 근거와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 족장시대의 예배와 제사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에 관한 언급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 4:3-5)이다. 이 예배에서 형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믿음 있는 제사의 요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제사를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⁷⁾

두 번째로 봐야 할 예배는 ‘노아의 제사’(창 8:20-21)로서, 이 예배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속적인 의미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이다.¹⁸⁾ 또한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이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과 직결되는 장소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성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¹⁹⁾ 그것은 예배

17)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1), 23.

18) 위의 책.

19)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21.

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해야 할지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장소)임을 깨닫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임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할 제사는 ‘아브라함의 제사’(창 12:1-8; 22:1-7)이다.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인도에 대한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이루어진 감사의 예배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제사하던 그 장소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⁰⁾

족장 시대의 제사는 제물을 피 흘려 죽게 하며, 불 태워 드리는 번제로 이루어졌던 예배이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의 의미가 전제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²¹⁾ 믿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모세시대의 예배와 제사

모세 시대의 예배는 출애굽 후에 시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계명과 예전에 관한 규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통하여 예배 생활을 실천하였다.²²⁾ 이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20)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23-24.

21) 위의 책, 24.

함께 하시는 장소로서 그리고 제사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막의 장소와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주관하신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이다.²³⁾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성막과 제사 규례들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그것은 이전까지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의 예배에서 대중적이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집단적으로 드리는 대중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백성들의 참여는 다분히 간접적이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는데, 매년 3회 정해진 때 즉 장막절, 맥추절, 무교절의 예배시에는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다.²⁴⁾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참여케 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점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의 목적도 있는 것이다.

이 예배 가운데 커다란 특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그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들을 순종하기로 수락하고 굳게 약속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만남은 언약에 인(印)을 치는 것과 같은 예배이다.²⁵⁾

22) 위의 책, 25.

23)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25.

24)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29-30.

25) 위의 책, 25-26.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예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3. 성전예배

모세의 출애굽에서 계시된 제물에 의한 제사, 즉 제물 중심의 예배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오면서 계속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시대에 계시하셨지만,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야 성전 건축이 되었다(왕상 6:1-8:66; 대하 2:1-8:2).²⁶⁾

이러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한다.²⁷⁾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은 안식, 반역, 심판, 회개, 회복의 역사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시대를 여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다.²⁸⁾ 이러한 성전 건축은 이방 우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기준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으며, 그들의 제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성전은 또한 공간의 상징적 사용이라는 특색을 보여준다. 성전을 바깥

2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26.

2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26.

28)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38-39.

딸, 안뜰, 그리고 지성소 등으로 배열한 것은 예배하는 인간들과 지성소에 거하는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보여 주는 것이고, 성전의 수많은 거룩한 예식들을 통하여 그 간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보여 주고 있다.²⁹⁾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³⁰⁾ 우리들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예배에 담겨 있다고 볼 때 성전 예배가 지나간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회당예배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었고(B.C. 722-721),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B.C. 587-586)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의 변화로 성전에서의 예배 생활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를 행하지 못하고 회당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만들게 되었다.³¹⁾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보존하려 애쓰고 있었고, 그 매개체로서 회당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회당은 유대인 촌락 생활의 종교, 교육, 사회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회당을 통해서 고대 유대 종교의 전통을 그대로 보존하고 대를 물려 후대로 계승하게 하였다.³²⁾

29)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27-28.

30) 위의 책, 28.

31)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27-28.

32)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29.

회당 예배는 어떤 거룩한 의식이나 제사장 제도가 없었다. 회당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회당 예배는 신앙 고백,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과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앙 고백은 ‘쉐마’라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세 곳의 성경 본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그 첫째는 신명기 6:4-9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그 둘째는 신명기 11:13-32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축복과 섬기지 않는 자가 받을 징벌이 무엇인가를 선언한다. 셋째는 신명기 28:1-11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강조한다.³³⁾

회당 예배는 기도를 중시하였는데, 쉐마의 낭독 후 18가지의 기도문이 사용되었다. 기도의 순서는 역시 세 부분의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일련의 기도들인 테필라(tefillah)가 예배시 회중들에 의해 선 자체로 낭송되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기르시며,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찬양한다. 그리고 삶의 지혜에 대한 간구로, 회개, 죄의 용서, 토라(the Torah)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 박해, 기근, 병 같은 환난으로부터의 구원등을 간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과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다.³⁴⁾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낭독되었다. 유대인의 가장 큰 의무가 토라를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배우고 마땅히 식구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의무 사항이 바로 토라이다. 토라를 봉독할 때는 한 구절씩 읽고 번역하는 식으로 봉독되었다.³⁵⁾

33)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33.

34)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29-30.

35) 위의 책, 30.

토라의 봉독 후 설교가 행해졌는데, 설교는 봉독한 성경을 해석하고 회중의 일상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설교는 테라샤(derashah), 즉 교훈을 찾아 내기 위해 토라를 “찾는”(searching)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설교자는 다르산(darshan), 즉 “찾는”(searched) 사람으로 불려졌다. 이 설교의 목적은 도덕적이고 신학적인 교훈을 제공하였는데,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그것에 의지하여 하루 하루의 삶을 살아갈 원리와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회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³⁶⁾

회당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로 인한 환경 가운데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그들의 신앙과 언어등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고, 그 결과 이 회당 예배는 성전 예배보다는 좀더 자유스러웠고, 많은 회중들이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 당시 회당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그들 공동체의 삶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체 역할을 하였다.³⁷⁾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이러한 회당 예배의 흐름은 사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의 예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5. 절기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절기라고 하는 독특한 구별된 예배들이 있었다. 이 예배는 1년에 한 번 온 백성이 모이던 때였고, 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었다. 이 절기들 역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

36) 위의 책, 31.

37)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42.

이스라엘의 삶의 특별한 때를 기념하기 위해 연중 행사로 지켜졌던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다른 날들과는 구분을 지었다. 이러한 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의식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³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 중 두 가지 절기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월절(Passover)’이란 용어는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지은 여호와께서 ‘넘어 가셨다’(passing over)는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구속의 절기이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주의 만찬을 도입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³⁹⁾

다른 하나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알려진 이 절기는 유월절에서 시작한 일정한 한 기간이 끝났음을 보여 준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때가 이 오순절때이다.⁴⁰⁾

비록 절기가 일 년에 한 번 있는 예배였지만, 이 절기들을 회상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구별된 기간을 드림으로 거룩한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때도 절기를 통해서 드러졌다. 이 절기는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켰었다.

38)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32.

39) 위의 책.

40) 위의 책, 32-33.

B. 신약의 예배

1. 예수님 시대의 예배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회당에서와 동시에 성전에서도 예배가 거행되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당예배와 성전예배를 병행해 오던 이런 형식을 예수님도 참여하셨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막 14:49) 일반 유대인들처럼 절기 때에는 성전에서 성전예배에도 참여하셨다(눅 2:22; 요 7:14). 그리고 회당에서는 구약성서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심으로(눅 4:16) 이러한 예배 의식들을 인정하셨다.⁴¹⁾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과 함께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문을 여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의 온전한 제사(히 9:12)를 십자가 상에서 드리셨고, 그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길을 내셨기 때문이다(히 10:10).⁴²⁾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예배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에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더 이상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오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는 주기도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41)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42.

42) 위의 책, 43.

주시면서 제시한 기도의 본보기이다. 이 기도문을 가르켜 신약성경 연구가들은 예전적인 형식으로 형성된 것이라 말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둘째는 인간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영원함을 찬양한다.⁴³⁾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례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다. 그럼에도 받으신 것은 본을 보여 교회의 예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⁴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한 회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예배드리는 자는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다.

세 번째로 성만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를 통해서 예배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셨고, 그것을 기념토록 하셨다.⁴⁵⁾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함으로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였고, 포도주와 떡을 나눔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까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한다.

예수님은 회당예배와 성전예배를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드리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였다.

43)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45.

44) 위의 책, 45-46.

45) 위의 책, 43.

2. 사도시대 예배

사도시대의 예배 형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성령은 신자들의 몸 안에 거하시며 예배자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기 시작했다. 46)

기독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가운데서 시작되어 헬라적 유대인 공동체를 거쳐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

그 중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들은 계속 기도 시간을 지켰고(행 3:1), 성전을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행 3:11-26; 4:12-13, 19-26, 42).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말고도 집에서 또다시 예배를 드린 것은 그들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현실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7)

그에 반해 헬라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성전예배에 깊이 몰두어 있지 않았다. 헬라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폐기되었고,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헬라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해석하고, 제사 의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예배의 발전의 길을 예비하였다. 48)

46)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44-45

4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40-41.

48) 위의 책, 41-43.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특징은 예배에 있어서 자유를 유지하려는데 큰 관심이 있었고, 따라서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성만찬과 방언에 대해서 예배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치면서, 주의 만찬을 대하는 태도와 방언을 예배 가운데서 통역과 같이 행해져야 함에 대해서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내용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성찬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강조하였고(고전 11:23-26), 교회 안에 내려온 가르침에 대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였다.⁴⁹⁾

사도 시대의 교회의 예배는 자유스러우면서도 질서를 요구하였고, 바울은 이에 대하여 헬라적이며 유대적인 전통을 전제로 초대 기독교적인 예배를 이해하였다. 사도 시대 교회의 예배 안에는 이런 이해 속에서 성경의 낭독과 가르침, 복음의 선포와 설교가 있었으며, 애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며, 성만찬을 거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였다. 또한 세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참여케 하였고, 신앙고백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교리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헌금과 연보를 통해서 구제하는 일과 교회를 돕는 일에 힘을 썼다.⁵⁰⁾

사도 시대의 예배는 교회의 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바탕 위에 교회들은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의 예전들을 세워 나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서도 모델이 되기까지 하였다.

49) 위의 책, 43-46.

50)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51-63.

C. 속사도 시대의 예배

사도들을 직접 이룬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는 주로 2세기 후반부터 3세기 초까지를 말한다.

2세기의 교회의 문헌에는 예배의 모습을 상세히 담은 글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예배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피하였는데, 특히 주의 만찬은 이교도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보안에 신경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플리니의 서신’과 ‘12사도의 교훈’ 속에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문헌을 살펴보면 주의 만찬과 애찬(the *agape* feast)이 구별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애찬은 교회의 최초의 예배 경험에서 기인한 기독교의 공동 식사이다. 이 애찬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에서 생략되기 시작하였다.⁵¹⁾

변증가 저스틴(Justin)이 안토니우스 피아수 황제(Emperor Antonius Pius)를 대상으로 쓴 문헌에는 예배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배가 말씀과 주의 만찬의 2부 구조(two-part structure)로 되어 있다는 점과 매주의 첫째날(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점이다.⁵²⁾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적용하는 부분으로써,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1)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49–54.

52) 위의 책, 54–65.

D. 중세교회의 예배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일이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지위는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극도의 호조건 속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 집이나 동굴에서 소집단으로 모여있던 무리들이 한 곳에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대형화된 교회 건물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집전을 위해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 역시 점차 확장되었고, 그 결과 교황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조건들이 급격하게 변천되면서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것은 곧 예배 현장에 신비적 요소와 미신적 형태를 발생시키게 되는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⁵³⁾

1. 동방교회의 예배

동방 교회는 역사적으로 콘스탄티노플과 연결된 교회들로 칼세톤과 비잔틴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서 그 예배는 시리아 지방의 서쪽 또는 안디옥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비잔틴의 예전은 12-13세기까지 이루어졌다.⁵⁴⁾

동방 교회의 예배에서는 그 교회가 속한 문화가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동방의 세계관은 미(美)를 사랑하는 헬라적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예술적인 표현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동방교회의 예배의 관심은 천상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지상을 천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53)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78-79.

54)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90-91.

예배 의식은 현란하고 취향찬란하며 아름다웠다. 이같은 현란한 아름다움과 장엄한 의식은 신비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상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합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때에 장엄한 의식과 현란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적 임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쓴 것이다.⁵⁵⁾ 그러다보니 동방 교회의 예배는 전례대로 말씀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떡과 포도주의 준비를 그리스도의 수난의 내용을 세밀하게 상징하는 성찬상의 예식으로 바꾸어 그것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하였고, 이 예식에 ‘소입장(the Little Entrance)과 ‘대입장’(the Great Entrance)이라는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예배가 신비의 식화로 되었다.⁵⁶⁾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예배식(St. John Chrysostom liturgy)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소입장은 복음서 봉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도록 의도된 화려한 의식 가운데 한 집사가 복음서를 들고 들어오면, 십자가와 촛불과 향을 든 신부들과 복사(服事, 미사때 신부를 돕는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 뒤를 따른다. 그들은 제단(the altar area)과 성소(the sanctuary)를 나누며, 그 위에 성상이 배열되어 있는 성상 간막이의 북쪽 문을 통하여 행진한다. 그들은 교회의 중앙 통로로 내려온다. 거기서 복음서가 송축되고 입맞춤을 받는 예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왕의 문(Royal Door)을 통해, 복음서가 노래되거나 읽혀지는 거룩한 단(Holy Table) 앞으로 나아간다.

대입장은 떡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행해진다. 이 행렬에는 모든 성직자들이 참여하며, 복사들은 불을 들고 향로 드는 자들(thurifers)은 향로를 흔들면서 뒤를 따르는가 하면,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창, 채찍,

55)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77–79.

56) 김득용, 『현대교회 예배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70–71.

가시 먼류관 같은 수난의 상징들을 들고 행렬에 참가한다. 이들은 성상 간막이의 북쪽 문을 통해 내려왔다가 다시 왕의 문을 통해 되돌아간다. 회중들이 떡과 포도주의 감추어진 상징을 보도록 하기 위해 집전자는 잔을 쳐들며, 집사는 성반을 머리에 이고 간다. 신부들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동안에는 문들이 닫힌다. 그러다가 일반 회중이 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다시 열린다.⁵⁷⁾

이러한 아름다움은 그 당시 키에프(Kiev)의 군주인 블라디미르(Vladimir)가 어떻게 회람 정교회를 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⁵⁸⁾ 그 아름다움의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 휘황찬란함은 많은 신비로움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배는 사제들이 진행을 하고 청중들은 구경을 하는 성찬식이라는 드라마가 되어 버렸고,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배로 발전하게 되었다.⁵⁹⁾

2. 서방교회의 예배

서방교회에서는 로마가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로마의 예배 의식이 보편화되었다. 오랫동안 지방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예전이 사용되어 오다가 주후 500년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예배 형식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그것은 로마식 의식(the Roman rite)와 골 의식(the Gallican rite)이다.⁶⁰⁾

초대 교회의 원시적 예배 형태에서 기인한 고율식 예배 의식은 로마식

5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77–78.

58) 위의 책, 79.

59) 위의 책.

60)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함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81–82.

보다 더 화려하고 감각적이며, 더 상징적이고 극적인 것이 특색이다. 더욱이 고울식 의식은 로마식보다 더 길고 더 유동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다. 고울식 의식이 유럽 전역에서 두루 사용되면서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반면에 로마식 의식은 주로 로마에서만 사용되었다. 양 의식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피핀(Pepin)과 샤를마뉴(Charlemagne)에 의해 고울식 의식이 박해를 받으면서 9세기 이후에는 로마식 의식이 서방 교회의 표준 예배 의식이 되었다.⁶¹⁾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방 교회도 그것이 속한 문화를 반영하였지만, 로마인들의 마음은 헬라적 동방인들의 마음과는 달랐다. 로마인들은 실용주의 정신(a spirit of pragmatism)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은 로마식 예배에도 반영이 되었다. 로마식 예배 의식은 화려하지도 않고 고도로 의식적이진 않지만, 단순하며 차분하였다. 5세기의 로마식 예배에는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들어올리는 것, 종을 울리는 것, 불을 사용하는 것, 향을 피우는 것과 무릎 꿇는 것등의 의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식 의식의 단순한 장엄함 속에는 매우 큰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경외감이 넘쳐 흘렀다.⁶²⁾

3.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초대 기독교회 안에서 시작된 예배 의식과 신도들의 생활 양식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하여 충분히 발전하게 되었다. 1054년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완전히 분리된 후에 교회는 서방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와 의식이 행해지게 되었고, 종교개혁 전까지 미사(Mass)

61)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80.

62) 위의 책, 80-81.

라는 예배 행위를 통하여 의식 중심, 예식 중심의 예배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외적인 형식과 예식을 강조하였다.⁶³⁾

미사는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예배 형태로 신부가 집례하였고, 구약의 성전 예배 형태를 변형시켜 행한 것이다. 중세 시대의 미사는 인위적인 정교한 형식으로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성경 읽기, 교독과 교창, 끊임없는 기도문, 찬송 및 성자들의 기념 축제가 포함되었다.⁶⁴⁾

이러한 예배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배에 신비적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된 원인은 첫째로, 콘스탄틴 대제의 치하 때 교회가 많은 이교의 축제들과 풍습들을 개조하여 거기에다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선교 전략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이교의 신비 제의(mystery cult)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신비 제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의적 행동(cultic action)이 목적 자체로 간주된다는데 있다.⁶⁵⁾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예배를 신비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미사, 여행에서의 안전을 위한 미사, 도둑을 잡고 포로자의 석방을 위한 미사, 비를 위한 또는 좋은 날씨를 위한 미사등 많은 미사가 생겨난 것은 그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 있다.⁶⁶⁾

두 번째 요인은 언어이다. 교회는 독일, 프랑스, 영어 사용권 지역들로 퍼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서 사용된 언어는 라틴어였다. 따라서 대

63) 김득용, 『현대교회 예배학신강』, 72-73.

64) 위의 책, 73.

65)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83.

66) 김득용, 『현대교회 예배학신강』, 74-75.

부분의 사람들은 미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었고, 미사와 성직자들 주위에는 신비의 광채가 빛나는 것만 같았으며 더욱이 교회가 점차 자신을 한몸으로 보기보다는 위계 질서를 갖춘 제도로 보기 시작함에 따라 교회와 일반 교인들의 거리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교회는 구원을 베푸는 자로 자칭하게 되었고, 특히 성찬은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전략하게 되었고, 9세기에 이르러는 파스카시우스 라드베르투스(Paschasius Radbertus)가 떡과 포도주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미사에 임재하신다는 주장을 펴므로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Lateran Council)을 통해 화체설이 나오기까지 하였다.⁶⁷⁾

또한 성경은 개방되지 아니하고 사제들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반 회중은 사제의 강론에만 의지하는 형편이었는데, 성경의 말씀은 자국어로 되어 있지 않았고, 성도들의 생애와 전설의 일단이 성경의 말씀을 대신하게 되면서 예배는 신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다.⁶⁸⁾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 무지해져 갔으며, 미사에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맹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예배가 신비적 의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 의식에 대한 이해와 형식의 의미와 형식에의 체험의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이에 대해서 웨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배를 신비적 의식으로 보는 개념은 의식적인 형식을 잘못 사용한 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형식은 그것 자체로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 형식은 그것을 통해 예배가 드러지는 수단이며, 형식이 보여 주는 실재의 표징(sing)이요 상징(symbol)인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 형식

6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83.

68) 김득용, 『현대교회 예배학신강』, 75.

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될 때 형식들은 제의적 성격(a cultic character)을 띠게 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대치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⁶⁹⁾

이러한 변화는 화체설과 면죄부등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 내에 들어 오게 하였고, 이러한 결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미사가 예배로서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의 자리로서 사용되어지고, 성찬을 도구로 무지한 성도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게 되었다. 예배의 참된 의미가 상실되었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4. 수도원 운동

신비적이고 본 모습을 상실한 예배 의식의 반동으로 시작된 것이 수도원 운동이다. 중세 시대의 예배에서 미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수도원 운동인데, 선지자적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교회내에 강한 영향을 끼친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수도원의 예배는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기도에서만은 독자적인 기도관을 발전시켜 나갔다. 기도는 기독교 전승에서 항상 중요한 요소였는데, 수도사들은 기도를 삶의 유일의 만족으로 본 데 그 새로운 면이 있다. 즉 삶의 모든 것을 기도에 종속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수도원 운동의 견해는 중세 교회의 제도주의화와 세속화와 대립을 보이게 되었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세속화에 반격을 가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의

69)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82.

초월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⁷⁰⁾

수도원 운동의 예배에도 이러한 관심이 반영이 되었고, 그들의 예배는 점차 경건적이고 헌신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성찬은 경건의 수단으로 보았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좀더 거룩해지는 수단, 즉 성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수단이 되었다. 그렇다고 성찬을 교회의 실현과 미래의 왕국 잔치에의 참여로 본 초대 교회의 시각을 버린 것은 아니다. 단지 새로운 관점은 성찬을 영적인 유익을 얻는 행위, 즉 영적 자양분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본 것뿐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기도의 규칙들, 매일의 기도 시간들에 맞는 기도 입문서(the devotional manuals)가 개발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개인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의 기도 시간이 교회가 지키는 기도 시간과 같았고, 진행 내용도 교회가 지키는 내용과 같았다. 처음에는 개인 기도의 내용은 교회의 기도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증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었고, 개인 기도는 시간과 삶의 의미의 선포였고, 경건적 성격은 강했지만 개인 경건의 향상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기도를 개인적 경건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고, 이것은 교회의 기도 또한 개인적 경건의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고 말았다. 즉 기도가 개인의 경건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⁷¹⁾

중세 교회의 반동으로 나온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잃어버린 경건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예배와 기도가 경건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 버렸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갱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경건을 되찾으려는 노력과 기도

70) 위의 책, 87.

71) 위의 책, 87-88.

의 강조성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꼭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IV. 종교개혁시대의 예배

종교개혁의 중심은 구원의 교리에 대한 개혁이지만, 그 실체는 예배와 예전의 개혁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전을 미사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예전을 성례화했던 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⁷²⁾

A. 루터의 예배

루터(M. Lutter, 1483-1546)는 종교개혁과 함께 그 정신에 적합한 새로운 예배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루터의 예전에 대한 비판은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인간의 준비로서 공로적인 행위로 이해한 제물 예배를 거절하는 데서 출발한다.⁷³⁾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의식 자체보다는 미사를 제사로 보는 일과 그럼으로써 파생되는 모든 폐단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하였다. 이같은 루터의 비판은 1520년 ‘교회의 바빌론 유폐’(De captivitate Babylonica ecclesiae praeludium)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루터는 미사가 더 이상 라틴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로 들려져야 하며,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는 1종 성찬과 화체론 그리고 미사에 대한 희생제사의 개념을 통렬히 반박하였다.⁷⁴⁾

루터는 성례를 세례와 성만찬으로만 간주하였다. 이 두 가지 성례만 그리스도가 제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루터가 이해한 주의 만찬은 살아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갖는 교제에 기초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72)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97-98

73) 위의 책, 98.

74) 정승훈, 『말씀과 예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2.

루터의 이해는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다. 루터 자신보다는 이후 루터란들이 명명한 성만찬의 공체설(consubstantiation)은 신자가 성만찬을 받을 때 실재적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성만찬에서 갈보리에서 유일회적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연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며 그분과의 새로운 계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다.⁷⁵⁾ 루터는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sacrament)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제는 결코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며 모든 믿는 자가 다 제사장임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전통적인 예배를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하였다. 전통적인 예배를 유지하되 개혁하기를 원하였다. 이런 면은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차이가 있다. 루터의 예배에 대한 개혁의 의지는 종교 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개혁을 위하여 예전적 가르침에 대한 3가지의 문서를 쓰게 된 것에서 발견하게 된다.

루터는 ‘교회의 예배 순서에 관하여’(Vonordnung gottis diensts ynn der gemeine, 1523)에서 예전에 관련된 물음을 16가지로 나누어 예배의 근본 원칙을 제시하고, 예배를 특별히 설교의 직무 수행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전에서 3가지의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첫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전이 성경을 읽고 노래부르는 것으로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일을 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지 않는 예배는 기독교 예배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둘

75) 위의 책, 31-32.

째는 비기독교적인 전설이나 성경의 근거를 갖지 못한 것들이 예전의 행위로 시행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셋째는 사람들은 예배를 공로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이였다.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보상적 행위는 복음의 칭의적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⁷⁶⁾

루터의 두 번째 글은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와 성찬의 형식’(Formula missae et Communionis pro ecclesia Vuittembergensis, 1523)이다. 이 글에서 루터는 찬송과 성경 본문은 독일어였으나 다른 부분은 그냥 라틴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성찬 의식에서는 떡과 잔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삭제하고 설교가 중심이 되게 하였다.⁷⁷⁾

세 번째 글인 ‘독일 미사와 예배 순서’(Deudsche Messe und ordnung Gottisdiensts, 1526)에서 루터는 예배 개혁의 5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첫째, 회중이 구경만 하던 자리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자유롭게 해 주었다. 둘째, 예배에서 설교를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구성 요소로 만들었다. 셋째, 예배의, 제물로의 제사 행위의 개념은 미사에서 멀리했다. 예수님의 성찬 제정의 말씀만을 원칙으로 삼았다. 전에는 침묵 속에 기도만 행하였으나 이제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였다. 넷째, 성찬은 떡과 잔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예배에는 자국어가 사용되도록 하였다.⁷⁸⁾

루터가 이 3가지 글을 통해서 예배 개혁에 대해 강조한 점은 성찬은 떡과 잔이 함께 나누어져야 함과 각 나라의 언어로 예배가 행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예배의 순서에 매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

7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99.

77) 김영재, 『교회와 예배』, 86-87.

78)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100.

경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의 본질과 의미를 되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루터의 예배관을 총신대학교의 정일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예배관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사상에 대하여 반공로주의(antimeritorich)적이며, 반성례주의(antisakramentalisch)와 반영성주의(antispiritualistisch)⁷⁹⁾, 반개혁주의(antireformistisch), 그리고 반주관주의(antisubjektivistisch)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⁸⁰⁾

루터의 예배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루터가 기존의 예배의 틀을 깨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루터가 지적한 참된 예배의 본질과 의미들은 예배와 성만찬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책 ‘독일 미사와 예배 순서’에 실린 예배 순서를 참고하자면 다음과 같다.

찬송 또는 시편(독일어로)
키리에(Kyrieleison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Kollekten Gebet, Collect, 예배 시작을 위한 짧은 기도)
찬송
복음서(곡조를 부쳐 낭송)
신앙고백의 찬송(독일어로)
설교
주기도(풀어서 하는 기도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성찬 제정의 말씀
배찬(성찬을 받는 동안에 ‘거룩’-Sanctus나 찬송을 부름)
성찬 후의 기도

79) 반영성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다른 영, 즉 인간적인 영향이 주어지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80) 위의 책, 101.

아론의 축도⁸¹⁾

루터의 예전은 기존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루터는 예배에서 찬송을 중히 여겼는데, 그 자신이 교회 음악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터는 쾰링겐나 칼빈과 달리 교회에서 오르간을 계속 사용하였고, 성가대로 하여금 라틴어로 합창을 하도록 했으며,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성가대가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는 ‘칸토’(cantor, 노래하는 자)가 찬송을 인도하였다. 이와 같이 루터는 교회 음악을 장려하여 발전시켰다.⁸²⁾

B. 쾰링겐의 예배

쾰링겐(H. Zwingli, 1484-1531)는 스위스의 취리히(Zürich)를 중심으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자이다. 그는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재현이나 성상의 사용 등을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루터 계열과는 예배의 형태나 내용을 완전히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⁸³⁾ 따라서 쾰링겐리는 자기 시대에 드러지던 미사 전문이 사도적 기원이 있음을 부정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교부들보다는 성서에 우선권을 두었고, 성서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엄격히 배제했다.⁸⁴⁾

쾰링겐리는 ‘1525년 취리히 교회의 예배 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감사, 또는 성찬의 상기에 관한 행위 또는 관습’(Action oder Bruch des nachtmals, gedachtnus odes dankagung christi: MDXXV und der

81) 김영재, 『교회와 예배』, 87.

82) 위의 책, 86-87.

83) 정장복, 『예배의 신학』, 93-94.

84) 정승훈, 『말씀과 예전』, 33-34.

ordnung der Christlichen Kirchen in Zürich)란 글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 전통을 철저히 개혁하였는데, 그것은 매주일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도록 하는 예배 즉 설교 중심의 예배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쾰링글리는 설교 중심의 예배에 역점을 두면서 설교는 성경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의 원천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도구로 보았고, 거기서 종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쾰링글리는 이와 같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설교됨을 통하여 살아 있는 예배로 바꾸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카톨릭 교회의 7가지 성례를 거절하고, 세례와 성찬만을 택하였다. 이 두 가지 성례도 연중에 4차례 정도 행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그것은 쾰링글리가 성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기념적인 사건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⁸⁵⁾

쾰링글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성경 봉독과 기도, 죄의 고백 그리고 모국어로 된 설교만을 강조한 형식을 내세웠다. 따라서 그는 대부분이 말씀의 예전 순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했으나, 성서 일과(lectionary)가 간소화되고, 성자 축일(saints days)에 관련된 기도문이나 성경 본문, 기타 순서들은 배제하였다. 특히 음악적 요소들을 과격할 정도로 축소시켰는데, 예배 가운데 오르간을 비롯한 제반 악기의 사용과 시편 교독을 대신하는 회중들의 찬송을 모두 삭제하였다.⁸⁶⁾

쾰링글리가 쓴 1525년의 ‘독일어 예배의식’에 있는 성찬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배
성찬 준비

85)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102-03.

86)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726-27.

기원(Invocation, Votum)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기도(Collect)
 성경봉독 : 서신서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 Gloria in excelsis(교독)
 성경봉독 : 복음서에서
 사도신경
 * 성찬식
 권면(Exhortation)
 성찬상으로 다가서기(Fencing of the Table)
 주기도
 겸손히 나아감을 위한 기도
 성찬 제정의 말씀 : 떡을 떼고 목사들이 먼저 성찬을 받는다.
 떡과 잔을 회중에게 나눈다.
 성찬후 시편 교독(Post-communion psalm)
 기도(Post-communion collect)
 폐회(Dismissal)⁸⁷⁾

썬빙글리는 루터처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예배의 성찬을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즉 항상 상기해야 하는 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⁸⁸⁾ 이러한 썬빙글리의 예배는 개혁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

C. 칼빈의 예배

칼빈(J. Calvin, 1509-64)은 프랑스인으로서 제네바에서 사역한 종교개혁자 중의 한 사람으로 파렐(W. Farel)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에 참여하였다. 파렐은 제네바에서 카톨릭 교회의 미사 중심의 예배를 제거하고, 미사 대

87) 김영재, 『교회와 예배』, 91-92.

88)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104.

신 매일 아침 일찍 설교 중심의 예배를 진행하였으며, 성찬은 간단한 형식으로 일년에 3차례 진행시켰다. 초기에는 별 성과가 없어 1538년 제네바에서 시의회로부터 추방을 당하였지만, 1541년에 다시 종교개혁자로 정식 초대받아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⁸⁹⁾

칼빈은 예배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루터보다 더 철저하였다. 칼빈은 예배와 모든 교회 생활을 성경에 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철저히 비판하였다. 그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 예컨대 제 2계명,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창 20:4)는 말씀에 충실하고자 교회의 미술품들을 제거하였다.⁹⁰⁾ 특히 칼빈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야 하는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자신이 주일 예배에서 철저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예배의 모범을 만들었다.⁹¹⁾

또한 칼빈은 예배의 이해를 강조하였다. 예배는 올바르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중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 음악에서도 회중들이 분명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며, 악기의 사용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이유는 음악이 말씀의 전달을 모호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으며, 단순한 멜로디를 원했고, 오르간 사용과 대위법적인 화성의 음악을 반대하였다.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민요나 세속 음악을 교회 음악으로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찬송가 대신에 시편에 곡을 부쳐 부르도록 하였다.⁹²⁾

칼빈은 예배를 단순하게 드리도록 하였다.

89) 위의 책, 106.

90) 김영재, 『교회와 예배』, 95-96.

91)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108.

92) 김영재, 『교회와 예배』, 96-97.

예배는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과장된 허식을 세례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 성찬식에서 화려한 것들과 생명력이 없고 연극 같은 잡동사니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였다. 교회의 건축양식만 하더라도 길치장과 하찮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에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예배에서 모든 불필요한 동작이나 행위 혹은 언어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하며, 모든 언어나 행위 및 도구들은 그것들이 전달하고 표현하려는 내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⁹³⁾

이렇게 칼빈은 성경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의식과 예전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칼빈이 예배 의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538년부터 1541년까지 제네바에서 쫓겨나서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에 머무는 동안 불란서 피란민의 교회를 목회하면서였다.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슈트라스부르크의 시 당국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칼빈은 당국의 허락을 받아 한 달에 한번씩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이것은 후에 슈트라스부르크의 관행이 되었다. 칼빈은 부처의 예배서를 따라 드리고 있는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 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거의 그대로 본받아 불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칼빈은 1542년에 제네바로 되돌아 와서도 이것을 적용하였다.⁹⁴⁾ 칼빈은 부처가 사용했던 예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채 예배의 의식을 갖추었던 것이다. 칼빈은 자비의 연도(Kyrie eleison)나 영광송 등을 생략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⁹⁵⁾ 칼빈의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서와 제네바 예배서는 다음과 같다.

93) 위의 책, 97.

94) 위의 책, 94.

95) 정장복, 『예배의 신학』, 97.

* 말씀의 예배(The Liturgy of the Word)

| | |
|--------------------------|-----------------|
|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서(1540) | 제네바 예배서(1542) |
| 성구 : 시편 124편 8절 | 성구 : 시편 124편 8절 |
| 죄의 고백 | 죄의 고백 |
| 용서의 성경말씀 | |
| 사죄의 선언 | |
| 십계명(곡을 붙여 노래함) | 시편(곡을 붙여 노래함) |
| Kyrie eleison을 매 계명마다 부름 | |
| 설교본문(Lection) | 설교본문(Lection) |
| 설교 | 설교 |

* 성찬식(The Liturgy of the Upper Room)

| | |
|---------------------------------------|-----------------------|
| 슈트라스부르크 예배서(1540) | 제네바 예배서(1542) |
| 구제헌금(Collection of alms) | 구제헌금 |
| 중재기도(Intercessions) | |
| 주기도(길게 풀어서) | 주기도(길게 풀어서) |
| 배찬 준비(사도신경을 노래함) | 배찬 준비(사도신경을 노래함) |
| 주기도 | |
| 성찬 제정의 말씀 | 성찬 제정의 말씀 |
| 권면의 말씀(Exhortation) | 권면의 말씀 |
| | 봉헌의 기도 |
| 떡을 떼 | 떡을 떼 |
| 배찬(시편을 노래함) | 배찬(시편의 노래 또는 성경봉독) |
| 성찬 후 기도 | 성찬 후 기도 |
| Nunc dimittis in metre ⁹⁶⁾ | |
| 아론의 축도 | 아론의 축도 ⁹⁷⁾ |

칼빈의 작은 수정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츠빙글리의 예배관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부처의 예배관의 본질적 성격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또한 칼빈은 초대 교회의 예배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일치하게, 말씀과 성례를 통

96) 누가복음 2:29-32의 시므온의 찬송: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97) 김영재, 『교회와 예배』, 94-95.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는 전통적인 예배의 2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부처의 종합적인 태도의 뒤를 이은 칼빈의 예배관은 개혁과 교회의 중요한 예배관이 되었다.⁹⁸⁾

D. 부처의 예배

슈트라스부르크는 루터의 영향이 절대적인 곳이었으나, 쾰링글리를 추종하는 부처(Martin Bucher, 1484-1531)가 책임을 맡으면서 루터계의 바탕 위에 있던 예배 속에서 쾰링글리의 사상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예배는 루터와 쾰링글리의 중간적 성격을 띄게 되는 양상을 가져왔다.⁹⁹⁾

슈트라스부르크의 예배의 개혁은 디볼트 슈바르츠(Diebold Schwarz)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 예배는 과격한 변혁을 시도한 면이 없었을 뿐 아니라 루터계의 것보다 훨씬 창조적인 면이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의 영적인 표현을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¹⁰⁰⁾ 과거 예배 의식을 간단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도 가능하면 과거 예배의 요소인 성수 예절, 제의, 거양 성체, 집례자의 손 씻는 의식, 무릎 꿇는 순서등의 의식들은 보전하려 하였지만, 로마 교회의 희생 제사 교리는 배격하였다.¹⁰¹⁾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특성으로 ‘미사’라는 어휘 대신 ‘주님의 만찬’(the Lord's Supper) 또는 ‘성찬’으로, ‘사제’(priest)는 ‘목사’(minister)로, ‘제단’(altar)은 ‘성찬상’(holy table)으로 개칭하였다.¹⁰²⁾ 뿐만 아니라 성찬 제

98)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98-99.

99)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675.

100) 정장복, 『예배의 신학』, 95.

101)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676.

102) 김영재, 『교회와 예배』, 92.

단의 위치도 벽에 붙여 놓았던 것을 변화시켜 목사가 벽과 제단 사이에서 회중을 향해 서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였고, 예배 의식에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며, 성자들이나 성모의 기원은 배제하고, 죄의 고백은 약간 수정하여 소리를 내어 암송하도록 하였다.¹⁰³⁾

부처는 쾰빙글리에 의해 없어졌던 시편이나 찬송을 예배 가운데 복귀시켰고, 성서일과가 사라지고 목사가 마음대로 본문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출발시켰다. 성찬을 위한 특별한 복장은 허용하지 않았고, 주일이면 언제나 검정 가운을 입도록 하였고, 성만찬은 매주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대성당에서 지킬 뿐이었고, 월 1회로 바뀌었다.

부처는 1537년 루터교회와 쾰빙글리파 교회의 예배를 절충하는 예배 의식을 내었는데, 그 예배 의식은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배

죄의 고백

사죄의 말씀(Scriptural words of pardon, 디모데전서 1장)

사죄의 선언(Absolution)

시편, 찬송 또는 키리에스(Kyries)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말씀에 대한 조명을 기원하는 기도(Collect for Illumination)

시편 낭송(Metrical Psalm)

성경봉독 : 설교본문(Lection) - 복음서

설교

* 성찬예배

구제헌금(Collection of alms)

떡과 잔의 준비(그간에 사도신경을 노래한다)

중재의 기도와 봉헌의 기도(Intercessions and Consecration Prayer)

주기도

권면(Exhortation)

103)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676.

성찬 제정의 말씀(Words of Institution)
떡을 떼기(Fraction)
나누기(Delivery)
성찬을 받는 동안 시편이나 찬송을 부른다
성찬 후 기도
아론의 축도
폐회(Dismissal)¹⁰⁴⁾

부처의 예배는 훗날 칼빈의 예배 순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¹⁰⁵⁾

E. 존 낙스의 예배

영국의 교회가 정치적인 독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벌인 종교개혁은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었는데, 그 중심에 존 낙스(John Knox)가 있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성공회 예식서의 사용에 관한 그의 반대 주장으로 인해 제네바로 추방당했는데, 그는 그 와중에도 망명해 있던 영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회중들을 위한 목회자로서 그의 시간을 바쳤었다. 이 때 그는 회중들을 위한 예배의 형태로 칼빈의 예배 순서를 도입하였다. 후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을 때 그는 칼빈의 예식서를 가장 좋은 예식서로 활용하였다.¹⁰⁶⁾

존 낙스의 예배는 칼빈의 예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칼빈이 사용했던 예배의 말씀 대신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점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경외와 감사를 더 첨가하도록 한 것등 약간의 변동은 있다.¹⁰⁷⁾ 그러나 세례 때의 대부모 제도(godparent), 외경으로부터의 성서 일과 사용,

104) 김영재, 『교회와 예배』, 92-93.

105) 정장복, 『예배의 신학』, 95.

106)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722.

107) 정장복, 『예배의 신학』, 99.

병자에게 베푸는 성찬, 교회 밖에서의 개별적 세례 그리고 결혼 반지의 사용 등을 금하는 조항을 분명히 밝혔고, 이 예식서는 80여년 간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 속에 정착되었다.¹⁰⁸⁾

존 나스의 예전은 1564년 ‘공동 예배 예식서’(Book of Common Order)로 최초의 장로교 예식이며, 그 예식은 다음과 같다.

* 말씀의 예전

예배의 부름

기원(경회, 찬양,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구약의 말씀(한 장을 읽음)

신약의 말씀(한 장을 읽음)

운율을 사용한 시편(구, 신약 중간에도 사용했음)

고백과 중보의 기도

설교

기도(구속, 복음, 설교의 내용 등에 대한 감사)

주님의 기도

* 성찬 예배

봉헌(성물을 알맞은 그릇에 넣어 가져다 드리는 것 등)

성찬예의 초대

성물의 성별

성찬제정사(고전 11장)

권면

봉헌의 기도

성체 분할

분병·분잔

성도들의 참여와 명상

참된 생활의 강조

성찬 후 기도

시편 노래

축도¹⁰⁹⁾

108)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722-23.

109) 정장복, 『예배의 신학』, 99-100.

그러나, 이렇게 영국 성공회와 별개의 노선을 걷는 변혁에 대해 불만을 느낀 영국의 국왕은 자신의 교회와 일치된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였다. 여기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그러한 결과 웨스트민스터에 영국 의회가 모이게 되었고, 거기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독자적 신앙과 예배의 형태와 내용을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탄생시켰으며 장로교 정치와 예배 모범이 나오게 되었다. 1645년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는 이를 정식으로 받아들였으며, 오늘날 전세계 장로교의 소중한 교리 및 예배의 줄기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근간을 마련했다.¹¹⁰⁾

110)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723.

V.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

종교개혁 이후 17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예배는 많은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각 교단들마다의 역사를 살펴보고 고찰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개신교 예배의 주요한 3가지의 조류를 살펴보고 그 실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치하고자 한다. 3대 조류란, 첫째는 반예배적 경향(an antiliturgical stance),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understanding)하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 셋째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다. 이 3대 조류와 그에 따른 각 교파의 실례를 찾아보도록 하겠다.¹¹¹⁾

A. 반예배적 경향

그리스도인들의 반예배적 경향은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초기 침례교, 웨이커파가 그 실례이며, 그 중 청교도와 웨이커 교도들을 살펴본다.¹¹²⁾

1. 청교도 예배

청교도 예배는 비예전적(the antiliturgical movement) 성격의 예배이며, 이해와 경험을 강조한다. 청교도들은 칼빈과 같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는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적인 것들을 개혁해 나갔는데, 그 내용들은 다음과

111)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99.

112) 위의 책, 100.

같다.

첫째, 성경이 인정하는 예배 의식 이외의 인위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했다. 즉 교회 장식, 사제복, 오르간, 십자가 모형 등의 사용을 거부하고 비판했다.

둘째, 성공회의 제복을 없애고 검정 제네바 가운과 흰 띠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가장 알맞은 엄숙한 복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셋째, 성찬 분배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없애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받게 했다. 왜냐하면 이는 화체설의 기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세례 예식시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이유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신적 의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성경을 존중하여 강해 설교를 권장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근거하여 교훈과 위로와 교정을 회중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성인 축일, 사적인 세례, 대부 제도, 위경 봉독, 환자에게 성찬 베푸는 것 등을 폐지했다.

일곱째, 특수하게 설정된 예전보다 예배 규칙서나 예배 모범을 원했다. 1654년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Westminster Directory)이 바로 그것이다.¹¹³⁾

청교도들은 예배 시에 예배의식서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더 좋아하였다. 성문화된 기도를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자연스런 기도를 더 선호하였던 것이다.¹¹⁴⁾ 그들은 로마서 8:26에 따라서 주기도문이 반복되도록 규정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독창적인 기도를 위한 모범이라 확신하였고, 규정된 의식 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러

113)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729-30.

114) 김영재, 『교회와 예배』, 100.

한 사상들은 고린도전서 14:14를 근거로 공적 기도에서 승인하는 ‘아멘’ 외에는 목사의 음성만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응답의 기도문은 용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¹¹⁵⁾

이러한 청교도들의 예배는 신성한 예배의 완전한 기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례로서의 사도적인 단순성을 보여 준다.¹¹⁶⁾

2.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

웨이커 교도들의 특징은 회중 각 개인이 ‘성령을 섬긴다’는 점을 선호하여 안수받는 목사직의 제도와 성례 제도를 거부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의 중심점은 예배의 모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모인 하나님의 회중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를 섬긴다는 점에 있다.¹¹⁷⁾ 이러한 내적 조명은 모든 회중에게서 경험될 수 있고, 평온과 침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믿음이 있다.¹¹⁸⁾

웨이커 교도들의 예배는 인도자가 없이 진행되며 장로는 회중들이 지나치게 잘못 나갈 때 지적하는 역할만을 한다. 장로는 집회 중에 기립함으로 예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¹¹⁹⁾

웨이커 교도들에게는 ‘새 언약’(the New Covenant)에 의해 모든 의식과 형식은 폐기되었다고 보고, 성례와 같은 외부적 도움이나 외적 의식 역시 거부하였다.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신자들이

115) Horton Davies,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 김석한 역 『청교도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7.

116)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733.

11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101.

118)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117.

119) 위의 책, 117-18.

조용히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에게 예배란 완전히 내적(inward)인 것이었다.¹²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은 자신을 드리는 제사이며, 어느 누구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웨이커 예배의 전부이다.¹²¹⁾

B. 이해를 강조하는 경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런 경향은 회중 교회와 장로 교회에서 그 실례를 찾을 수 있다.

1. 회중 교회의 예배

영국 회중 교회의 초기 예배는 장로교와 유사하다. 예배의 의식과 내용은 성경적이고, 예배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카리스마적이었다. 예배에서의 성경적 강조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칼빈과 존 낙스의 예배에서처럼 장로교 예전과 다름이 없지만, 단지 성령님의 인도만을 강조하는 면만을 본다면 웨이커의 침묵 예배를 연상하게 한다.¹²²⁾

회중 교회는 성경 낭독에 대한 주석적 접근 방법을 발전시켰다. 성경 낭독자는 목사나 성경 훈련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봉독할 때 본문의 의미와 그 해석에 대해 주석을 달았다. ‘주석적 성경 봉독’(commentary reading)이 끝나면, 회중들은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질문을 하도록

120)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101.

121)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118.

122) 위의 책, 120-21.

권유를 받았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2-3시간의 설교가 이어졌고, 긴 설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단 한번의 휴식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¹²³⁾

2. 장로 교회의 예배

장로교회의 예배는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크게 강조하였다. 주해 설교를 강조하였고, 장로교 목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조명을 받도록 힘써야만 하였다. 장로교 목사의 설교는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교리적 내용과 그 교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이유와 교리를 입증해 주는 논거, 그리고 본문을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만 했기에 성경 원어와 신학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만 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규칙서에 성례를 ‘자주’(frequent) 거행해야 함을 명하고 있어도 일년에 4회 성찬을 거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장로교 예배에서는 성경과 성경 주해가 주된 중심 요소로 차지하게 되었다.¹²⁴⁾

123)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102.

124) 위의 책.

C. 체험을 강조하는 경향

개인의 체험(experience)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경건주의, 모라비안주의, 부흥운동과 현대의 은사 운동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1. 경건주의 예배

정통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운동으로 17세기에 루터파 교회에서 시작하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부 집단으로 파급되었다. 경건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형식적이나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인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미들부르그(Middleburg)의 장 드 라바디(Jean de Labadie)는 비형식적인 예배를 매우 강조한 인물인데,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들은 자유스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들이라 자처하는 경건주의자들은 자주 가정집에 모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자유스럽게 성경을 주해하였다.¹²⁵⁾

이들의 예배의 핵심은 회심에 있는데, 경건주의의 예배는 더 이상 교회의 객관적이고 집단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개인적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체험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강조되면서 예배의 설교가 회개를 초래하는 부흥적인 설교로서 예전의 첫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정통 교회가 사용해 온 만들어진 형태의 기도문은 더 이상 이들에게 만족이 될 수 없었으며, 전통적인 교회 성찬의 모습을 비판하였다. 경건주의의 예배가 살아 있는 믿음에 의한 예

125) 위의 책, 103.

배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예전에서 획득되는 ‘우리’라는 예배의 공동성의 의미를 상실한 예배로 만들어 버렸다는 결과를 가져왔다.¹²⁶⁾

2. 모라비안주의 예배

모라비안주의(Moravianism)가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는 예배관에 끼친 영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찬송에 미친 영향이다. 모라비안 교도의 찬송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돌아가려는 데 있다.¹²⁷⁾

3. 부흥 운동

대표적인 부흥 운동가로 18세기의 요한 웨슬리(John Wesley)를 들 수 있다. 그의 예배관은 고전적인 개신교 예배 형식에다 경건주의의 개인적 요소를 혼합시킨 형태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회심과 개인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웨슬리는 어떤 것도 소홀히 될 수 없는 예배의 외적 형식과 그것의 내적 힘을 구별했다. 예배의 외적 형식을 지키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예배 예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영적 예배’를 주장하는 탈예전적 예배자들 또한 비판하였다. 웨슬리는 예배란 전인격과 관계되어야만 하고, 외적 형식과 내적인 요소의 조화를 요구하였다.¹²⁸⁾

12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115-16.

127)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104.

부흥 운동의 특징은 찬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의 찬송은 회심과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찬송이 시편과 성경의 본문 내용으로 한계를 지어 놓은 정통 개신교의 관습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예배 사역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들어 왔다는 것과 야외 설교를 도입했다는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¹²⁹⁾

4. 현대의 은사 운동

은사 운동의 예배를 이해하려면 회중 각자가 적극적으로 완전히 예배에 참여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강조점은 몸으로서의 사역(body ministry), 자발성, 찬양과 기쁨, 교제와 사랑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은사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 예언, 통역, 신유, 가르침의 은사와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은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지체를 위한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발성의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유스런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쁨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그들은 예배에서의 기쁨의 체험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체험을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개인적이고 사적일뿐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집합적인 것이 현대의 은사 운동의 특징이다.¹³⁰⁾

128)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104.

129)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104–05.

130) 위의 책, 106.

VI. 현대 예배의 문제점과 제언

A. 현대 예배의 문제점

수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들을 내세우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의 갱신에 대해 부르짖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하였다. 저자는 중세 시대의 예배의 문제점들을 현대의 예배에 접목시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하려는 공통점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여 현대의 예배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공연적 요소

중세 교회의 예배의 커다란 특징중 하나는 바로 공연적 요소이다. 여러 가지 예전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놓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요소들은 성도를 예배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요소가 현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데, 열린 예배가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콘서트 형식의 열린 예배에는 설교, 간증 뿐만 아니라 연극과 무용, 영상 음악등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라 할 수 있다.¹³¹⁾

열린 예배의 커다란 특징은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다. 열린 예

131) 조영업,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서울: 도서출판미스마, 2001), 31-37

배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라고도 하는데 이웃초청 전도집회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분명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열린 예배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드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말씀의 예전과 성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열린 예배는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나 재능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제레미야 버러스(Jeremiah Burroughs)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¹³²⁾

이러한 요소들이 중세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내적인 면은 텅 비어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바로 말씀의 부재이다. 열린 예배의 커다란 문제점 중 하나가 설교이다. 설교의 시간이 짧거나 드라마나 연극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음악적인 다양성과 미디어의 활용이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다.

중세 시대의 문제점들이 열린 예배라는 현대에 유행하는 예배의 형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세 시대때의 잘못된 예배를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32) Jeremiah Burroughs, *Gospel Worship*, 서창원, 최승락 역, 『예배의 타겟을 복음에 맞추라』 (서울: 도서출판 진리의 깃발, 2002), 132-35.

2. 수단적 요소

중세 시대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수단적이었다는 것이다. 예배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성화나 개인의 구원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수단적 요소가 현대 예배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복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예배의 특징이 기복신앙이다.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고, 어떠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미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분히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 그것은 한국 전통의 무속 신앙에서 이어온 것이다. 목사가 심방을 하면 주로 현세적인 축복만을 빌어주는 것이 현실이다. 예배가 무당이 벌이는 곳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기는 하지만, 이것을 수단화하여서 어떠한 목적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새벽예배에 더 잘 드러난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이며,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물 한잔 떠다놓고 복을 빌던 무속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다.

예배의 이해가 부족했던 중세시대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복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신비적 요소

중세 시대의 예배는 신비적 요소가 많았다. 소입장, 대입장을 비롯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인도하는 중세 시대에는 화체설과 면죄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예배에 상징적인 예배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의식 속에서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없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신비적인 요소가 현대 예배에 스며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순절 교회의 은사 예배이다. 은사 예배가 한국 교회에서 방언과 치료의 기도와 함께 열광적인 찬양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드러지고 있다. 열광적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음악의 과다 사용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 은사를 행함으로 신비롭게 보이고, 능력이 있게 보이는 것이 이 예배의 특징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해야 구원 받은 것으로 보는 이 예배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롭게 느껴진다. 또한 한국 교회의 부흥회의 모습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 놓은 것과 같다. 빠른 템포의 가스펠과 함께 드러지는 현대 한국 교회의 부흥회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인 양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오순절 교회의 은사 예배나 부흥집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말씀에 기준이 서는 것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신앙이 바탕이 되는 예배들로서, 신비적인 요소가 종교 개혁시대에는 외부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면 현대 교회에서는 내면적인 면으로의 신비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제언

중세 시대의 잘못된 예배의 관행들을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였다. 종교 개혁자들마다 조금씩 종교 개혁의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개혁하려는 점과 정신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 공통점들을 제시로 현대 예배가 어떠한 갱신을 해야 할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개혁자들의 공통된 관심은 먼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 본 미사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복음서와는 정면에서 대치되는 이 미사를 예배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미사에 나타나는 희생 제사의 신학(theology of sacrifice)이 유발한 수많은 폐습들에 대해서도 제거하였다. 미사는 일반 회중들에게 미사의 참여를 통해서 온갖 유익과 이익을 기대하게 하였다. 병이 낫거나 영혼이 연옥에서 구출된다거나 다른 마술적 효과 등을 기대하였다. 일반 회중이 꼭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 미사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사를 올리는 사제가 회중들이 드리는 예배를 대치하게 되었고, 구원을 사는 법적 수단으로까지 변하였다. 이러한 미사에 대한 추방에 대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일치하였다.¹³³⁾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의식서들을 작성하면서, 예배에 꼭 필요하고 성경에 합당한 것들을 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현대의 예배 가운데서 회중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공연적 요소들이나 수단적 요소, 미신적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사를 올리는 사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는 구경꾼이 되었던 중세와 같이 오늘날의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하였다.

133) Robert E. Webber, *Worship—Old and New*, 92–93.

따라서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현대의 예배에서도 먼저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과 이해를 통해서 올바른 예배 의식서들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로, 종교 개혁자들은 화체설 교리를 거부하였다.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면하여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로 성부에 드려진다는 것이 화체설이다.¹³⁴⁾ 어떠한 수단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현대의 예배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되기 위해서 우선적으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중의 예배 이해이다. 회중이 먼저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요소들이 의식적으로 제거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교회의 예배에 비록 수단적인 요소가 없는 정통 교회의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수단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닐 것이다.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로 성령의 능력 아래 드려지는 예배를 이해하여 공동체적인 예배와 삶으로서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¹³⁵⁾ 따라서 현대의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치료하는 시간들이나, 새벽 예배의 수단화등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부분들이며, 회중이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면,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회중들이 먼저 예배를 갱신할 것이다.

셋째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옛적의 고유한 예배 위치로 회복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말씀의 권위와 중요성을 원위치에 올려놓은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은 현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134) 위의 책, 93-94.

135)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20-28

있다. 특히 미국 내의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복고운동(Liturgical Movement)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예배의 부름, 죄의 고백, 용서의 확신 그리고 성체분할과 같은 예배의 내용들을 복고하고 설교와 예전의 균형을 유지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¹³⁶⁾ 현대 예배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내의 교회들이 복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공연적 예배를 바꾸어 말씀과 예전을 중요시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바르며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 운동으로 여겨진다.

넷째로,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가 각 지역의 고유 방언으로 드러져야 하며, 말씀과 성례의 2부 구조로 계속 유지되어야 함에도 일치성을 보였다. 회중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말씀과 성례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예배가 각 지역의 고유 방언으로 드리는 가운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문화가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동방교회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서방교회가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각 지역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마다 예배의 토착화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예배 형식이 나올 수는 있지만, 기독교 예배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어야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¹³⁷⁾

그에 반하여 현대의 예배의 성례의 회복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쾰빙글리의 영향으로 현대 교회가 성례를 일년에 4회 혹은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도 자주 드리기를 원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136) 정장복, 『예배의 신학』, 83.

137) 김영재, 『교회와 예배』, 44-45.

게 제시한 성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씀의 예배와 성례의 균형이 맞아
질 때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종교 개혁자들은 본
것이다.

VII. 결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예배의 본질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서 현대 교회 예배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대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갱신해야 할지 모색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 예배의 정의를 내리고, 예배의 뜻을 살펴봄으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예배의 정의와 뜻을 통해서 예배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을 조명하였다.

3장에서는 예배의 역사적 변천을 구약시대부터 중세까지 살펴봄으로 예배의 변천사를 통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점점 족장, 성막, 성전, 회당으로 그 의미가 넓어져 감을 보았고, 신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예배의 시작을 살펴보았으며, 속사도를 거쳐 중세까지 예배가 아름답게 발전해 갔지만, 의식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점점 포함되기 시작했음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종교 개혁 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중세시대의 잘못된 예배를 바로 잡으려는 루터, 쾰링거, 칼빈, 부처, 존 낙스를 살펴봄으로 말씀과 예전의 균형과 예배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다.

5장에서 종교 개혁 이후의 시대를 통해서 현대 예배의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고찰하게 되었고, 각 교단들의 다양한 예배들을 살펴보았다.

6장에서 현대 예배의 문제점으로 공연적 요소, 수단적 요소, 신비적 요소를 들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현대 예배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홍수에 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관찰한 외

국의 예배 신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이 한국교회에는 ‘집회가 있을 뿐 예배는 없다’이라는 점은 가슴 아픈 일이다.¹³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인 예배에 인간적인 수단들과 자신을 나타내려는 공연적 요소들, 광란적인 신비적 요소들은 결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가 아니다. 따라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초대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와 그들의 예배의 개혁은 오늘날 예배를 갱신하려고 깨어있는 많은 예배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열쇠가 될 것이다.

138) 정장복, 『예배의 신학』, 16.

참고문헌

- 곽노광. 『예배학 개론』. 서울: 성지원, 1994.
- 김남수. 『예배와 음악』.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 김득용. 『현대교회 예배학신강』.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 김영기. “종교개혁의 예배 이해에서 본 한국교회 예배순서 갱신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 석사 학위 논문, 순신대학교, 1997.
-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 김의작. 『교회음악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 김진호. 『숨겨진 보물 예배』. 서울: 예수전도단, 1993.
- 남호근. “21세기 예배 회복에 대하여.” 미간행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안양대학교, 2002.
- 박성민. “예배 형식의 역사적 고찰.” 미간행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93.
- 송호석. “청교도 예배와 삶을 통해 본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미간행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0.
- 이명희 외 9명. 『복음주의 예배학』. 서울: 요단출판사, 2001.
- 정승훈. 『말씀과 예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이레서원, 2001.
- 정장복. 『예배의 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1.
- 정장복 외 9명. 『예배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0.
- 조명은. “예배의 역사적 변천과 그 형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

- 석사 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1998.
- 조영엽.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_____.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1.
- 차철귀. “한국 교회 예배유형과 갱신과제.” 미간행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한신대학교, 2000.
- 허상봉. “개신교 예배 모형의 역사적 고찰과 새로운 예배 모형 제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목회학 석사 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95.
-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 Burroughs, Jeremiah. *Gospel Worship*. 서창원, 최승락 역. 『예배의 타겟을 복음에 맞추라』. 서울: 도서출판 진리의 깃발, 2002.
- Clark, Gordon H. *What do Presbyterians Believe?*. 나용화 역.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 Davies, Horton. *The Worship of The American Puritans*. 김석한 역. 『칭교도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De Jong, James A. *Into His Presence*. 황규일 역. 『개혁주의 예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Hahn, Ferdinand. *Stuttgarter Bibelstudien*. 진연섭 역. 『원시 기독교 예배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Kendrick, Graham. *Worship*. 채슬기 역.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사역』. 서울: 하늘사다리, 1998.
- MacArthur, John Jr. *True Worship*. 한화룡 역. 『참된 예배』. 서울: 두란노서원, 1986.

- Morgenthaler, Sally. *Worship Evangelism*. 임하나 역. 『이것이 예배다』. 서울: 하늘사다리, 1998.
- Ralph, Martin. *Worship in the Early Church*. 오창윤 역. 『초대교회 예배』. 서울: 은성출판사, 1989.
- Rayburn, Robert G. *O Come Let us Worship*. 김달생, 강귀봉 역. 『예배학』. 서울: 성광출판사, 1990.
- Thomas Leishman, D. D. *The Westminster Directory*. 정장복 역.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2.
- Warren, Rick.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새들백교회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 Webber, Robert. E. *Worship—Old And New*. 김지찬 역. 『예배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Wiersbe, Warren W. *Real Worship—It will Transform Your Life*. 주해홍 역. 『주여 나를 잘못된 예배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서울: 도서출판 아숨, 1995.